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25장(면류관 벗어서)..... 다 같이
※ 교독문85(요한1서4장)..... 다 같이
※ 신앙고백(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90장(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김애경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찬양대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5-19..... 김기희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528(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봉헌(김영란집사).....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환영의시간 전도사역팀 / 인사와 축복의 노래.....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 예배 후 감사절 공동식사가 있습니다.	
- 전도 초청자와 오신 분들은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은 1층 종합교육실에서 식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오늘 찬양예배는 교육부서와 신도회가 감사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인도 / 이경훈전도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말은이 본문 / 말씀 / 이경훈전도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에스겔 강해 금요기도회 오후9시 / 소예배실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진행:김혜경권사(친교부장)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한국회집사	
	헌금위원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다음주	1부	말은이
		12월	김기희 김애자 김근중 이강영	성경봉독	2부	박상권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	다음주	사라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김영란집사(찬양대지휘자)	다음주	4 구역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 고린도후서 5:16-19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첫발걸음을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관심은 웰빙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적 생존, 인간적 생존 시대를 지나 문화적 생명의 시대가 되었고, 웰빙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쾌락적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류는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잡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6절).

웰빙(참살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고 치장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17절).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말은 소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외국인이지만 귀화해서 한국인의 신분이 되고, 신분의 변화에 따라 영광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소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유를 얻습니다. 이는 곧 새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10:10), 영생이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모든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3.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분, 곧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18절).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용서받고, 서로 다투고 미워했던 사람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잘 사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 / 내 절기를 지키라(추수감사절 / 2013.11.17)

최선을 다해 드리는 감사(레위기23장 33-44절)

말씀 살피기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기념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던 추수감사제입니다.

1.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34절)
2. 초막절은 무엇을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까?(39,43절)
3.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었습니까?(35-36절)

말 씀

초막절은 애굽의 바로의 사슬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던 광야 남쪽 시내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들을 저장한 후 이레 동안 지켰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자세를 살림으로써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피보겠습니다.

첫째, 초막절에는 성회로 모이려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35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8일째)에 성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성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킨 모든 절기를 의미합니다. 초막절에 성회로 지키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모든 생계 활동을 금하고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총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초막절은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36-38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중앙 성소에서는 매일 번제와 소제(곡식예물), 희생제물과 전제를 절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다른 절기보다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민29:17-38). 이렇게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린 것은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과 한 해 동안 풍족한 소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감사는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 하심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초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42,43).

초막절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초막이란 햇볕과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든 임시거처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종들을 자유하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과 광야여정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불편한 초막에 거주하면서도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의 즐거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냈던 감사가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3. 나는 칭찬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는 편입니까?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절기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2. 전도초청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하 친교실에서 공동식사가 있습니다.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은 1층 종합교육실에서 감사절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 찬양예배는 각 신도회와 부서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4.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최임춘 이완수 김봉순 강은순 김대봉 한상호 차소라 박세일 노순영 김희숙 허 응 김순님 심복례 최승만 양석임 오복실 곽현석 박정일 박지영 김영란(b)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김유진 김옥길 여순애 복석규 김유정 김희숙 양석임 신공님 김동현 이유선 (일천번제)김동현 (생일)김금자 (선교)양희림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박상규 공영순 강동균 김현아 심승기 에스더 박희순 사라희
- 추수감사 : 김귀래 김범진 김근중 강진숙 최근배 박세일 한미경 나인연 나인애
- 비전씨앗 : 배영인 노장호 노현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곡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곡
1	박홍만	김금자	천사라	3	14,000	10	이현옥	7	강은순	이영선	김홍영	6	18,000	90	강은순
2	정정희	김한순	박희순	4	22,000	45	공영순	8	김순님	오복실	허 응	5	22,000	30	여순애
3	이준호	함경숙	이종봉	3	15,0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박치국	4	17,000	100	김진자
4	김기희	최경선	정선래	5	21,000	72	김기희	10	장영분	박현순	안복선	3	15,000	100	노재의
5	이문순	원해경	윤종원	3	20,000		남궁순					41	164,000	552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5	22,000	105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손을 잡아 주시는 분

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가 한번 T.V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는 조라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하는 일은 다만 두 손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편에서 외수없이 나를 향해 달려올 조의 손에 꼭 붙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서커스의 비밀이다. 따라서 서커스 스타는 내가 아니라 조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커스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뒤에 숨어 우리 손을 붙잡아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힘차게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 기다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시 63:8)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피곤해진 우리의 영혼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독수리와 함께 난 새

하나님의 간섭노르웨이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어떤 소년이 숲 속에 놀러갔다가 이상한 알 하나를 주었다. 그는 그 알을 집에 가지고 와서 거위가 품고 있는 알속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부화가 되어 새끼들이 나왔는데 그 알에서 나온 새끼는 다른 새끼들과는 달리 부리가 뾰족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거위 흉내를 내면서 어미 거위를 졸졸 따라다녔다.

얼마 후 이 새끼는 날개가 크게 자랐다. 어느 날 독수리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거위들을 위협했는데 이 새는 “나도 저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날개를 쭉 펴보았다. 그리고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독수리와 함께 날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새끼는 바로 독수리였기 때문이다. 독수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독수리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 .

이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비록 세상적인 것과 더 붙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6 2013.11.17.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도초청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이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의 행사

1. 제직회 - 11월 3일
2. 해든솔 선교활동 - 11월 9일 오전8시30분.
3. 평신도참여예배 - 11월 10일 / 베드로회
4. 추수감사주일 - 11월 17일
 - * 이 날은 전도초청예배로 드립니다.
5. 추수감사절찬양예배 - 신도회별 찬양
6. 예, 결산위원회 - 11월26일 / 제직회에서 결정
7. 각부감사 - 11월 30일 오전10시30분부터
 - *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감사 : 제직회에서 결정.
8. 경기노회 제176회 제1차 임시노회
 - 11월 5일(화) 오후2시 이천새터교회

담당목사 : 최세일(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